



29일 오후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예정대로라면 프로야구 개막 2연전을 맞아 관중들의 뜨거운 열기와 함성으로 가득 차아야 했을 야구장에서 KIA 선수들의 훈련만이 진행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개막전 대신 훈련...봄 야구가 낯설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개막 첫승 소식을 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월리엄스 감독이 딱 알맞게 휴식기간을 정해서 오늘 선수들의 훈련 모습이 좋습니다.”

조계현 KIA 타이거즈 단장은 29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재개된 선수단 훈련을 지켜보며 아쉬움과 동시에 적절한 휴식을 통한 훈련 재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규리그 개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입국 일정을 늦추지 않아 국내 훈련에도 문제가 없는 데다 지난 주말 비 예보 소식을 접한 월리엄스 감독이 25-28일 나흘간의 휴무를 결정

**KIA 선수단 나흘 꿀맛 휴식 후 훈련 재개 내일 흥백전 4월7일부터 구단간 연습경기 예정 '무관중 시범경기' KBO 이사회 4월20일 이후 개막전 가이드라인 논의**

하면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한숨 들릴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KIA는 28-29일 NC 다이노스와 정규리그 홈 개막 2연전을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29일 관중석이 텅 빈 챔피언스 필드에서 KIA 선수들의 훈련만이 진행됐다.

조계현 단장은 “플로리다에서 훈련 강도가 매우 높았다. 귀국해서도 하루 밖에 안 쉬고 곧바로 훈련을 시작했고 격일로 자체 연습경기도 해왔기 때문에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마침 비 예보도 있었고, 월리엄스 감독이 적절하게 선수단에 쉴 시간을 줬다. 4일 동안 쉬고 돌아온 선수들의 상태가 매우 좋아 보인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감독, 선수 모두 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향한다. 매일 경기장에서 상태 체크도 하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오늘 훈련을 재개했고 4월7일부터 무관중 시범경기 형식으로 치러질 연습경기를 하면서 개막을 준비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IA 선수단은 31일과 4월2일 오후 1시 자체 연습경기를 하고 4월4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4월5일 연습경기를 할 예정이다. 경기시간은 모두 오후 1시이며 연습경기가 없는 날은 훈련을 한다. 5일 연습경기 이후 스케줄은 구

단간 연습경기 일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그동안 금지됐던 팀간 연습경기는 4월7일부터 일종의 ‘무관중 시범경기’ 형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는 당일치기 형식으로 치러지며 구단간 이동거리에 있어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해 KBO에서 경기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KBO가 개막전을 4월 20일 이후로 미뤘지만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누그러져 4월 6일부터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한다면, 프로야구는 4월 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주 후인 4월 21일부터 시작

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학이 연기될 분위기고 KBO는 4월 7일 이사회에서 개막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계현 단장은 “4월20일 이후 개막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이다. 학교 개학시기와 정부의 발표, 그리고 안전 우려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개막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간 개막 시점을 1차로 조율했던 프로 10개 구단 단장들의 모임인 실행위원회는 31일엔 개막일을 따로 논의하지 않고 외국인 선수 자가 격리와 관련한 구단의 요청 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 K리그 직관하기 좋은 경기장 ‘대구·인천·포항·광양·경남’

축구전용구장 최고 손꼽아 크기 작으나 시야 가장 좋아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2020시즌 K리그 개막을 기다리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직관하기 좋기로 손꼽히는 경기장’을 선정했다.

전국에 있는 K리그 22개 구단이 가지각색의 매력을 갖고 있던 경기장 역시 제각각 특색을 갖고 있다. 올해로 지어진 지 92년째를 맞이하는 부산의 구덕운동장부터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2002 한일월드컵의 유산인 월드컵경기장들, 그리고 지난해 ‘대박신드롬’을 불러일으킨 DGB대구은행파크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직관하기 좋기로 손꼽히는 경기장은 역시 축구전용구장이다. 주로 크기는 작지만 그만큼 높은 몰입감과 뛰어난 시야를 자랑한다. K리그의 대표적인 축구전용구장은 K리그 1의 대구(DGB대구은행파크), 인천(인천축구전용경기장), 포항(포항스틸야드), K리그2의 전남(광양축구전용구장), 경남(창원축구센터)이다.

▲대구(DGB대구은행파크) : 성적과 인기를 모두 잡은 ‘대박 신드롬’의 주인공

지난해 K리그 팬들에게 가장 화제가 된 경기장을 꼽으라면 단연 대구 FC의 DGB대구은행파크다. 대구시 민운동장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 탄생한 이곳은 총 좌석수 1만2,400여석으로 국내에서 가장 작은 축구전용구장이다. 애칭은 ‘대박’이다.

편리한 교통과 동선, 경기장 내 다양한 먹거리, 무엇보다 그라운드와 열기가 생생히 전해지는 관중석까지. 지난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포항스틸야드 - 광양축구전용구장 - 창원축구센터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 DGB대구은행파크.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해 경기장 개장과 동시에 여러 차례 티켓이 매진됐던 인기에 걸맞게 대구는 K리그 12개 팀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성적과 인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인천(인천축구전용경기장) :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곳

장단 이후 인천 문학경기장을 흡수한 인천유나이티드는 지난 2012시즌부터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동지를 옮겼다. 송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탄생한 이곳은 약 2만석 정도 규모이며, 무엇보다 그라운드와 관중석이 아주 가까운 것으로 유명하다.

거리가 가까운 만큼 팬들의 열기가 선수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까닭인지 인천은 2013년부터 K리그에 승강제가 도입된 이후 시도민구단중 유일하게 한 번도 강등되지 않았다.

▲포항(포항스틸야드) : 3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최초 축구전용구장

대한민국 최초의 축구전용구장 포항스틸야드는 올해로 개장 30주년을 맞이한다. 포항은 이곳에서 지난 30년간 1992년 한국프로축구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K리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FA컵 등 총 9차례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스틸야드는 오래된 경기장이지만 그간 철저한 유지보수 공사로 여전히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뛰어난 시야와 생생한 현장감은 K리그 팬들에게 극찬을 받는다.

또한 스틸야드의 자랑거리는 바로 그라운드의 잔디다. 포항은 그간 우수한 잔디 관리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수여하는 그린스타디움상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전남(광양축구전용구장) : 전남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 곳

전남 드래곤즈가 창단 때부터 써오고 있는 광양축구전용구장은 1993년

에 준공된 대한민국 2호 축구전용구장이다. 국내 최초 축구전용구장인 포항스틸야드와 같이 모기업 포스코에서 지은 곳인 만큼 두 경기장은 많은 점이 닮아있는데 특히 중소도시에 이상적인 경기장으로 불리고 있다. 총 좌석수가 약 1만3,000석일 정도로 작은 편인 이곳은 15만명이 조금 넘는 광양 인구 에 어울리며, 전남의 흥겨운 지역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또한 축구전용구장답게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경기가 가까워 경기에 몰입하기도 아주 좋다.

▲경남(창원축구센터) : 축구와 함께 빼어난 자연 경치는 덤

창원축구센터는 2010시즌부터 경남FC의 홈구장으로 사용돼왔다. 총 좌석수는 약 1만5,000여석으로 수용 인원이 적은 편에 속하지만 아담한 크기 덕분에 더 경기에 집중이 잘 된다는 장점도 있다. /최진화 기자

## EPL이 본 아시아 선수 ‘최고의 골’ 12골 중 3골이 손흥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돌아본 ‘아시아 선수 최고 골’에서 손흥민(28·토트넘)이 12골 중 3골을 차지했다. 이정용(32·울산)과 설기현 경남 FC 감독(41)도 이름을 올렸다.

EPL은 지난 28일 홈페이지에 ‘아시아 선수 최고 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역대 아시아 선수들의 멋진 득점 장면을 추려 소개했다.

EPL에서 활약했던 아시아 출신 스

타들이 티프린 화려한 골 모습 속에 가장 빛난 선수는 현재 리그 정상급 공격수인 손흥민이다.

영상에 나온 총 12골 중 3골이 손흥민의 몫이었다. 3골 중 2골은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에 힘입은 ‘질주’ 끝에 나온 골이었다.

손흥민 외에 한국 선수로는 지금은 영상을 통해 역대 아시아 선수들의 멋진 득점 장면을 추려 소개했다. EPL에서 활약했던 아시아 출신 스

의 골이 재조명됐다. /연합뉴스

## K리거 총 784명...광주 35명

K리그1 구단별 평균 인원 36.9명

2020시즌 K리그 선수등록 마감 결과 K리그1은 443명, K리그2는 341명으로 총 784명의 선수가 등록됐다. 국내 선수는 715명이고, 외국인 선수는 69명이다.

2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기존 선수에 대한 등록을 마감한 이후, 11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오는 이청용(울산), 성남으로 동지를 김영광(성남), ‘6년 차 K리거’ 에텔(제주),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마르코(광주) 등 이적, 입대, 신인선수들이 추가로 등록됐다.

K리그1의 12개 구단의 구단별 평균 인원은 36.9명이며, 수원이 43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등록했고, 군팀인 상주(29명)를 제외한 전북과 부산이 33명으로 가장 적었다. 광주FC는 35명을 등록했다.

10개 구단이 경쟁하는 K리그2에서는 경남과 제주가 39명, 부천이 29명으로 각각 최대, 최소인원을 등록했으며 구단별 평균 인원은 34.1명이다.

올 시즌부터 상주를 포함한 전 구단이 22세 이하 국내 선수 의무 출전 규정이 적용되는데, U22 선수는 K리그1 132명, K리그2 90명으로 총 222명이다. 이는 작년보다 16명 늘어난 수치이며, 대구는 42명의 선수 중 K리그 최다인 19명이 22세 이하 선수다. 광주 FC는 엄원상, 정현우, 김태곤, 이희곤, 김진현, 허을 등 6명이 22세 이하다.

경기등록을 마감한 연맹은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추가 선수등록 기간을 갖는다. /최진화 기자